

●●● 김연수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가짜 토종닭 근절위해



지난 2월 14일 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4대 회장에 김연수 소래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선출되었다. 회장직 임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4~5개월이 지나면서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연수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종닭산업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았다.

협회장으로서

김연수 회장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소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지난해까지 토종닭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간 김 회장은 토종닭을 일반 육계와 차별화된 산업으로 토종닭 산업을 특화시키고 발전·성장시키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해 왔다. 농가로서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소래영농조합법인을 창설하고 유통에서 판매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토종닭 산업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올해 토종닭협회장에 선출된 이후 회장으로서 토종닭 산업의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수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임감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한다.

가짜 토종닭 척결

토종닭협회의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종계·부화장 척결을 외친다. 불법종계·부화장을 척결하고자 양계협회와 함께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백세미가 토종닭으로 둔갑·판매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

짐은 물론 덤핑 판매까지 이어져 토종닭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선의의 토종닭 사육농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가짜 토종닭으로 둔갑하는 백세미들이 100~200만수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차원에서 이를 척결하고자 불법종계·부화장 단속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고발센터 현판식을 갖은 이후 현재 3개 불법종계·부화장을 발견하고 고발조치함으로써 신고센터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벌해야 할 규정이나 법령이 미약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법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시급히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법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복철을 앞두고 백세미 토종닭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업계에 협조문서를 보냈다. 계열사 및 유통상인들이 백세미를 토종닭으로 둔갑 유통시킬 경우 협회차원에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표명했으며 토종닭으로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백세미에 대해 도계를 자제해 줄 것을 도계업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노력

가짜 토종닭 척결 외에도 토종닭산업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해 토종닭 품질인증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토종닭 인증제 실시를 위해 협회 회장단 회의를 거쳤으며 농림부, 축산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토종닭 품질인증제 정착을 통해 토종닭 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이다.

가짜 토종닭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육된 토종닭에 품질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써 사육농가들에게 올바른 토종닭 생산을 유도하고 선의의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도 인증제를 통해 가짜로 인한 혼란 없이 토종닭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인증제를 기반으로 사육농가들이 우수한 육질의 토종닭 생산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별성 가진 토종닭으로 승부

김 회장은 우리 국내 토종닭 사육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미FTA로 인해 육계와 달리 토종닭이 수입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농가들도 보다 좋은 육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기능성 제품, 무항생제 등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연수 회장은 협회를 통해 우수한 우리 토종닭을 홍보·발전시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안전한 우리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정리 | 기영훈 기자)